卷頭言

# 國立公園 20年과 未來의 方向

## — 叱責의 소리는 國立公園에 對한 認識 높아진뜻 —

文 莊 寅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하는 KBS라디오 캠페인을 들을 때마다 나는 우리 國立公園을 聯想한다.

그것은 우리 國立公園이 꼭 그러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고, 그 바탕은 李朝時代의 無主空山 관념과 "山이 거기에 있기에 山에 오른다"는 듣기에는 매우 浪漫的이고 牧歌的인 風潮가 社會主流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人間은 自然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存在할 수 없다고 自覺하면서, 1967年에 智異山을 國立公園 1號로 지정한 우리 國立公園의 역사도 이제는 成年에 이르렀다. 그동안에 지정된 國立公園은 17개소, 海上公園을 除外한 陸地面積만도 國土의 3.5%를 占하게 되었고 그밖에 21개 道立公園과 22개 郡立公園등 그나마 原始性을 간직한 自然資源과 秀麗한 景觀을 길이 後孫에게 물려 주어야 할 自然公園은 國土面積의 4.3%에 達하고 있으나 先進諸國과 比較하면 國土面積 對比에서 아직도 未洽한 現實이다.

한편 國立公園 探訪客은 '80年 1,083萬名에서 '86年 3,625萬名으로 約 3.6倍로 增加하여 놀라운 增加率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高度經濟成長을 追求하는 産業化, 都市化가 가져온 결과로서 國立公園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단순한 行樂이 아니라 지금은 내일의 擴大再生産을 위한 必要不可缺한 社會的 需要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國立公園 20年을 뒤돌아보는 時點에 서서 現在와 未來의 國立公園을 생각할 때에 다시한번 保存과 利用의 調和를 强調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 對策으로서 二大支柱를 設定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올바른 physical plan의 樹立이고 또 하나는 國立公園에 對한 意識改革이다. 多幸히 今年 7月에 創立된 國立公園管理公團은 그동안 地方長官에게 委任되었던 國立公園의 管理, 運營權을 맡아서 專門知識의 投入, 專門人力의 養成, 豫算增加와 신속한 對應등 밝은 將來를 期待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政府에서 投資한 國立公園事業費는 56%가 進入道路整備에 投入된 것을 보면 道路가 社會間接資本으로서의 價値에는 수긍하나 公團은 登山路, 野營場, 水道, 化粧室, 案內板, 駐車場, 探訪者案內所, 展示室 등등 公園內部 시설에 비중을 두어 探訪客의 意識改革에도 敎育, 啓蒙的 效果를 함께 거둘 수 있기를 期待한다.

國立公園管理公團의 발족과 함께 韓國國立公園協會가 民法의 社團法人에서 自然公園法의 法定法人으로 격상된 것은 政府의 큰 英斷이며 同時에 協會會員은 先驅者로서의 責任이 그만큼 무거워 졌음을 自覺하고 民間主導로 國立公園 愛護運動의 底邊擴大에 보다 분발할 것을 다짐한다.

昨今, 매스콤 報道에서는 國立公園의 汚染, 惡臭, 쓰레기 등에 대한 叱責의 소리가 높다. 이와같은 현상은 우리 社會가 國立公園에 對한 認識이 그만큼 높아 졌음을 뜻한다. 國立公園을 비롯한 모든 自然을 保存하고 利用하는 調和는 人類全體가 짊어진 永遠한 宿題일지도 모른다. 學問的으로는 自然休息制, 收用限界量 등이 다투어 硏究되고 있으나 한 國家社會가 包藏하는 自然과 利用行態는 다른나라와 같을 수가 없다.

모름지기 우리나라에서는 山이 거기 있기에 山에 오르던 時代는 지났고, 우리 國立公園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가 찾을 수 있도록 다듬어 져야 하겠다.

〔本會 副會長·國立公園管理公團理事·自然保護中央協議會理事〕